근현대 선지식, 불교생태학…연구 주제 다채

동국대 2022년 상반기 박사학위 논문은

심층생태학 · 불교 상관성 고찰
백용성 · 백성욱 등 사상 조명
경기 화승 화풍들 비교 분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월 17일 중강당에서 '2022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46명, 석사 665명, 박사 10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자 중 불교학과 불교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14명으로 논문 주제로는 근현대 선지식부터 전통교학, 불교생태학까지 다양했다.

자헌 스님(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온(蘊), 심소(心所), 자증(自證)으로서의 수(受)'는 오온의 두 번째이자 십이연기의 7번째 영역인 '수(受)'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다뤘다. 자헌 스님은 논문에서 수의 원전어인 베디나(vedanā)나의 번역 문제를 조명하고 초기불교문헌에서 다루는 수의 내용을 통해 수의 정의와 특징을 밝히고, 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자헌 스님은 "불교의 수는 무엇보다 무상성과 연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자칫 자아나 실재라는 개념이 수로 인해 확고히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수는 인식수단이자 인식 자체이다.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자증되는 수일 때 수행을 통한 수습의 단계는 그 의미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병관(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심층생태학의 문제와 불교생태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병관은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심층생태운동을 조명하고 불교철학과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태학적 삶의 실천방안을 불교의 보살사상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봉종밀의 화엄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두진(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중국불교 화엄사상가인 규봉종밀(780~841)의 화엄선의 성립과 전개, 영향들을 분석했다. 그는 종밀의 화엄선 교학 연구가 유교와 도가로 확장됐던 점을 특징으로 꼽았으며 이는 송대(宋代) 유학과 도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홍나연(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원광 법사 진영과 그 복원 연구'를 통해 원광 법사의 행적을 분석하고 도상 창작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 그는 원광법사 진영 복원이 원광이 중국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 법을 펼쳤던 50~60대 연령으로 법사의 상을 출조했으며, 복식 · 지물 · 대좌의 도상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폈다.

'청소년을 위한 참나 만나기 명상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은정(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명상수행코칭전공)은 정서와 인지를 조율해 고통의 근원인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자아초월 프로그램(Non-Dual Therapy, NDT)'을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했다.

무각 스님(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은 '환성지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 후기 고승인 환성지안(1664~1729)은 청허휴정의 5대손으로 근현대 선풍을 진작시켜 현대로 선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무각 스님은 환성지안의 선사상과 실천 수행의 면모를 살피고, 환성지안의 한국선종사적 위치를 부각시켰다. 스님은 "호암체정과 함월해원, 설송연초, 연담유일, 백파긍선과 초의의순 등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환성지안의 제자들로 인해 한국불교 정통성 확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무호 백성욱 연구—금강경 신행공동체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희종(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은 스님이자 불교학자이며, 정치인이자 교육자였던 백성욱(1897~1981)의 행적 중 말년에 이뤄진 〈금강경〉 신행공동체 활동에 대해 조명했다. 1962년 결성돼 1981년 백성욱이 입적하기까지 활동한 〈금강경〉 신행공동체에 대해 김희종은 "〈금강경〉을 통한 정법으로서의 입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며, 짧은 기간동안 근본적인 변화로 새 불자로 거듭나게 했다. 이는 사회를 밝게 인도하는 진정한 불교신행공동체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정선(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는 3.1운동 민족대표이자 근대불교 선각자였던 백용성(1864~1940) 선사가 보여준 참선포교 전반을 문서 · 수행실천 · 대중법회 분야에 걸쳐 조명했다. 허정선은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백용성 선사가 근대 한국사회에 '참선'이라는 용어를 도심에서 최초로 사용한 내용과 도심지 포교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한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선사가 근대기에 추진한 모든 활동의 저변에는 참선에 바탕을 둔 그의 높은 수행력 및 선사상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명본 스님은 '〈불설별미후경〉의 연원과 변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처님의 본생담 중 하나인 〈불설별미후경〉은 한국 전래동화이자 판소리인 토끼전, 수궁가의 원전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살폈다.

스님은 "원천적인 소재로서 '원숭이와 악어 이야기'가 변용된 교리의 측면은 바른 견해인 정견(正見)에 포괄되고, 실천의 측면은 바른 실천인 정행(正行)에 포괄된다.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이라고 밝혔다.

'대인상(Mahāpuriṣa-lakkhaṇa) 개념의 성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원주(동국대 일반대학원 인도철학과)는 초기경전 속에 수록된 붓다의 신체에 대한 설명인 '32대인상'을 자세히 언급한 〈락카나숫따〉를 살피고, 이 같은 대인상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고찰했다.

불교미술 관련해서는 3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권보경(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신라 하대 · 고려 철불 연구'를 통해 신라 하대와 고려 철불의 특징을 살피고, 어떻게 감소됐는지도 분석했다.

권지은(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은 '불화의 초본 제작과 동초 방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조선 후기 초본의 제작 주체와 18세기 불교회화에서 출현한 출초화승과 그들이 제작한 불화의 화기를 통해서 작품 활동 연혁과 특징을 살폈다.

'18세기 경기 화승과 불화의 화풍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최학은 18세기 경기 지역에서 나타난 경기 수화승 화풍을 그들이 남긴 불화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의겸의 화풍이 각종에게 전해지고 이후 설훈을 통해 새로운 화풍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

팔만대장경, 한국 대표 홍보 문화유산 선정

문화재청, 2월16일 결과 발표
한복 · 경복궁 등과 함께 선정
국내외서 정부가 홍보진행해


한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한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한국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한복 · 경복궁 · 백제역사유적지구 · 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을 선정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불교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선정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재조대장경을 지칭한다. 경판의 수가 8만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일컫고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재조대장경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 팔만대장경은 13세기 중반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기원하고자 국가가 주도해 조성했다. 불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향유되던 중세 동아시아에서 대장경의 조성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기술을 상징했다. 고려의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고려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2007년 등재)으로,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995년 등재)으로 등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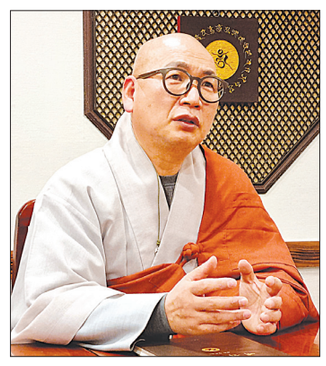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선정된 5개 대표 문화유산에 대해 세부 홍보계획을 수립해 올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발적으로 '입소문 홍보(Viral Marketing)'가 돼 세계인의 의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두되는 주변국의 문화공정으로부터 우리 문화를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야외 · 법당 예식 동일… 변화해야 합니다"

'예식의궤' 펴낸 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보통 통청, 소청해 권공하는 공양합니다. 이는 특정 성현이 부재할 때 '야외설단 법회'에서 행하는 방식이죠. 법당에는 이미 불보살과 신중들이 봉안돼 있습니다. 법당의 봉안 삼보에 대한 예경에는 소청이나 헌좌와 같은 의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됐으나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법당 예식을 바로 잡기 위해 〈예식의궤〉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사진〉은 의례집 〈예식의궤〉 발간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야외설단과 법당의 의례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이번에 발간한 〈예식의궤〉는 법당 내 의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예식의궤〉는 일러두기를 시작으로 아침저녁 예식절차, 상단 중단 권공, 대령 관욕, 시식, 영혼(迎魂)의식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평범한 의례집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변재(遍在) 삼보가 아닌 봉안 삼보에 대한 예경에는 소청이나 헌좌와 같은 의례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맞춰 의식을 변화해 기술했다. 대령과 관욕이 단순한 순차의식이 아님을 밝혀놓았고, 반혼의 경우도 사찰의 스님이 입적해서 사찰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닌 재가 망자가 사찰에 올 때는 전통의 영혼(迎魂)식으로 봉행해야 함을 제시했다.

진언의 표기를 〈진언집〉(1800)의 표기를 따르려고 노력한 것도 특징이다. 정오 스님에 따르면 〈진언집〉의 표기는 구개음화나 모음조화 이전의 방식으로 표기돼 있어 원음에 비교적 가깝다. 스님이 발간한 〈예식의궤〉는 이를 과감히 수용했다. 그래서 〈예식의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무아미타불을 '나모아미타불'로 적었다.

우리말 번역 의식을 우선하고 원문 의식을 부록으로 편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비록 예경의식만이라도 우리말 번역으로 편제하자는 스님의 노력이다. 이 역시 종단에서 표준 번역이라고 밝힌 것만 수용했다.

정오 스님은 향후 BBS불교방송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바른 불교의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불국사 성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오 스님은 동주 원명 스님에게 범패를 이수했다. 현재 스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 이수자이며 조계종 한글의례지도위원, 경북 예천 서악사 주지로 봉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